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7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 중고선가 지수는 87p로 전주와 동일함. 삼성중공업은 Nordic American Tankers로부터 157,000DWT급 수에즈막스탱커 2척을 수주했고 2022년 2분기까지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2020년 현재 전세계 누적발주량은 440척이라고 보도됨. (Clarksons)

EC, HHI-DSME 심사 LNG 분야에 집중

유럽집행위원회(EC)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대규모 합병이 LNG선 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EU경쟁총국은 대형컨테이너선, 탱커, LPG선 시장에 대한 우려는 접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Hapag-Lloyd reignites hunt for ultra-large boxship newbuildings

독일의 컨테이너 선사 Hapag-Lloyd가 23,000TEU급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을 최대 12척까지 발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추진 엔진으로는 LNG추진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주 규모는 10억달러가 넘는다고 보도됨. Hapag-Lloyd는 2023년 인도를 조건으로 조선업체들과 접촉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5년 내 암모니아 연료 기술 완비

MISC는 앞으로 5년 내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암모니아 추진 탱커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2~5년 이내에 암모니아 연료 엔진을 만들고 조선소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로이드선급(LR), MAN Diesel 등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올해 임금협상 타결... 조선3사 중 가장 먼저 마무리

삼성중공업 노사는 25일 2020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3년 연속 조선 3사 중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고용 보장에 합의했으며 임금타결금 100만원과 격려금 50만원, 노사화합 경영 상품권 50만원에도 합의했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KDDX '귀'와 '유도무기'는 LIG넥스원...2.7조원대 수주 기대

LIG넥스원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귀' 역할을 수행할 '소나체계 개발' 사업을 따내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장기적으로는 향후 KDDX에 탑재될 각종 유도무기도 LIG넥스원이 대부분 따낼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뉴스1)